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김수홍 (고려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면담, 관찰, 문서분석 등을 통해 한동대학이 갖는 독특한 맥락 속에서 한동대학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과 그 특징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술한 사례연구이다. 학생들이 말하는 교육적 경험의 특징은 ‘공동체를 통한 전인적 성장’이었고, 구체적 주제어는 첫째, ‘비전: ‘사명’에 대한 치열한 고민’, 둘째, ‘인성: 일상 속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배움’, 셋째, ‘전공 선택: 관심과 재능의 발견과정’, 넷째, ‘공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한 사회로의 준비’, 다섯째, ‘신앙: 세상을 보는 기본틀’로 요약되었다. 이런 학생들의 경험에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및 공식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경성.제도적 요인과 비공식 교육과정, 구성원 공동체 특성, 구성원의 공유한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연성.문화적 요인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가운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도울 것, 제도 뿐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이해할 것, 교육이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대학 구성원과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한동대학교, 교육적 경험, 대학문화, 전인적 성장

I. 서론

혹자는 한국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가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큰 관심이 없다고 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대학은 좋은 학생을 뽑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뽑아놓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덜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학 4년간 어떤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국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인 현재 더욱 중요해졌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하게 되었고, 국가의 경쟁력이 고등교육 단계를 통해 배출되는 인재의 질과 큰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최상덕 외, 2008; 신현석, 2008).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은 크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이미 80%를 넘어 2009년 현재 약 320만 명¹⁾의 학생들이 각종 대학에서 재학하고 있고, 매년 약 50만 명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새로이 대학에 들어가서 4년간의 시간 및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교육을 받는다 (신정철 외, 2008a). 4년간의 기회비용, 또한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대학입시에 맞추어져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오욱환, 2003), 중등교육의 목표

1) 2009년 통계에 의하면 방송통신대학 277,372명을 포함해 총 3,189,951명이 각종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교육통계 사이트)

가 되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고등교육의 질’이라는 주제 하에, 고등교육의 학습성과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로 이어졌다 (최정윤, 이병식, 2008). 대부분의 연구들은 크게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학습성과를 질문지를 통한 학생들의 답변으로 측정하고,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투입과 과정요인으로 나누고, 투입요인에는 학생의 개인특성 및 가정환경을, 과정요인에는 학교의 기관적 특성, 교육과정, 학생의 학습경험의 질, 학교만족도, 물리적 시설, 풍토 및 비전 등을 제시하였다 (김안나 외, 2003; 김은정, 2005; 김형관 외, 2001, 2002; 서민원, 1995a, 1995b, 1997, 2003; 신정철 외, 2008a; 오영재 외, 2001; 최정윤 외, 2007).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대학교육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이 무엇이고, 그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육의 질을 논한다는 측면에서 위의 연구들은 아쉬움을 남긴다. 바로 학습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학생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관련 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빈도만 알 수 있을 뿐,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기 때문이다 (Kuh, 2005: xvi). 또한 실제로 대학에서의 학습은 인지적 측면을 넘어서는 다양한 변수를 가진 한 개인이, 대학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역시 다양한 변수를 가진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대학의 독특한 환경 및 교육과정, 비전 및 학습풍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 및 세계관들이 그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Astin, 2003; Pascarella & Terenzini, 2005), 대부분의 연구가 개인의 변인 및 개별 대학이 가질 수 있는 학교의 특성 중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고려한 것은 학습과 성장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대학 교육의 과정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미국에서는,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대학을 선택하여 교육의 과정상의 특징 및 특징 형성 요인을 찾아내어 타 대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고(최정윤 외, 2007, 최정윤, 이병식, 2008), 이런 연구들은 개별 대학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한 연구에서는 찾아내기 힘든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Kuh, 2005; Light, 2001). 즉 대학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양적연구와 함께,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교육적 경험이 무엇인지, 그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 그런 경험에 개인의 특성 및 대학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별히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향은 무엇인지 등을 학생들의 시각을 고려해 보여주는 현장중심적인 질적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정철 외, 2008b; Clark, 2008).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 대학을 사례로 선정하여 질적인 접근 방식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과 그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정 대학은 지방의 신설 교육중심 대학교인 한동대학교(이하, 한동대)이다. 한동대는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학이며, 학부교육중심의 종교계 기속형 대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이해는, 학생 층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방의 사립대학들의 특성화 전략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육적 경험

인간의 삶 자체, 즉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 겪는 모든 것이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듀이는 경험을 인간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런 다양한 경험 중 교육적 경험은, 교육을 무엇으로 보는지와 관련이 있다. ‘교육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이란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해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정의 중 하나는 그것을 학생들의 ‘성장’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Dewey, 2002; 이돈희, 1993). 이 때 성장은 단순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기보다, “어떤 기준에 의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본다 (이돈희, 1993: 5). 즉 교육적 경험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경험’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기에, 어떤 경험을 교육적으로 보느냐, 아니냐는 그 시대의 사회 및 개인이 가진 성장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학생들의 성장, 혹은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고등교육 분야의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학생발달이론’과 관계된 것으로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 혹은 학생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효과 (College effect)’와 관련된 것으로 대학의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에 초점을 둔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전자는 심리학적 시각(Psychological perspective)이 강조되는 것으로 인간의 자연적인 성장단계를 설명하며, 특히 각 개인의 변화의 성향이나 그 변화 내용에 초점을 둔다. 후자는 사회학적 시각(Sociological perspective)이 강조되는 것으로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특성이나 학생의 대학경험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변화,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두 접근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전자가 학생의 ‘어떤’ 면에서의 변화에 집중한다면, 후자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Pascarella&Terenzini, 2005).

‘학생발달이론’에서 대학생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Chickering의 7가지 과업(벡터:vector)²⁾이 있다 (Pascarella & Terenzini, 2005). 이 과업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개인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사회나 국가와 같은 보다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겪게 되는 것으로 본다. 각 과업에 대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한번 성장하면 다시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7가지 발달과업에는 ① 유능감의 성취, ② 정서의 관리, ③ 자율성의 확립을 통한 상호의존, ④ 성숙한 대인관계, ⑤ 정체성 확립, ⑥ 인생의 목적, ⑦ 통합능력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정체성 발달은 이론의 핵심으로, 앞의 네 가지 과업은 정체성의 확립을 돕고,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에 인생의 목적 및 통합능력을 갖추게 된다 (Chickering, 1993).

학생의 성장에 대학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서는 학생의 변화는 대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진 학생에게 일어난 결과라는 관점에서 ‘학생성과(Student

2) 그가 벡터(vector)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7가지 요소들이 각각 방향성과 크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 벡터라는 개념은 테스크(task)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과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

outcome)', '대학성과(College outcome)', '학습성과(Learning outcome)' 등의 다양한 용어로 기술되고 있다. Ewell(1985)은 대학성과 (College Outcome)의 구성요인으로 ① 인지발달: 대학 졸업 시에 기대되는 일반 교육과 전공지식의 습득, ② 기능발달: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기능과 같은 기본 기능의 습득, ③ 태도발달: 학생의 가치와 그러한 가치 변화 정도, ④ 행동발달: 대학 졸업직후 학생의 수행력 등을 제시하였다.

대학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 연구에서 Pascarella & Terenzini(2005)는 대학에서의 학생 변화를 ① 인지능력 및 지성발달(비판적 사고능력, 형이상학적 추론을 포함), ② 심리사회적 변화 (자아정체성 발달,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독립심, 자기절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등을 포함), ③ 태도와 가치(정치적 성향, 시민의식, 민족성, 성역할, 직업관, 종교성, 예술성 등을 포함), ④ 도덕성 발달(도덕적 사고 및 행동을 포함) 등의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한편, 최근에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영성'과 '신앙'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Chickering et al, 2007). 영성에 대한 정의는 무척 다양하지만(Astin, 2004; Speck, 2005), 영성은 대체로 인간의 내적인 영역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공부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주변 사람 및 세상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질문과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stin, 2004). 진정한 자아, 일관성, 통합성 등의 추구와 관련되며 (Tisdell et al, 2003),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내면의 성찰과 반성에 기반한 행동을 통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Braskamp et al, 2006).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 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인지적 성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왔던 것을 지적하며, 정체성, 영성, 인성, 신앙 등의 영역을 포함시켜 학생의 성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이 학생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대학효과'이론을 들 수 있다. 보통 학생의 변화는 학생성과(Student outcome), 대학성과(College outcome), 학습성과(Learning outcome) 등에 모두 걸쳐진 개념으로, 이런 학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³⁾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학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그 차원도 여러 가지이다. 대학이 학생의 교육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분석틀 중 한 가지는 투입(Input), 환경(Environment), 산출(Output)로 구성된 'I-E-O' 모형이다 (서민원, 1995a; 최정윤·이병식, 2008). 이 때, 산출은 '학습성과' 혹은 '대학교육의 성과'로, 환경 혹은 과정(Process)은 대학교육의 과정 및 대학 환경 전반으로, 투입은 학생 개인의 특성으로 구분된다 (Astin, 2003; 서민원, 1995a). 학습성과의 영향변인은 크게 '투입'과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투입'요인으로는 학생의 개인특성 및 가정환경을, 과정요인에는 학교의 기관적 특성, 교육과정, 학교만족도, 물리적 시설, 풍토 및 비전 등 대학 환경으로 묶일 수 있는 요인들과 학생의 대학활동 참여도를 나타내는 학생의 학습경험의 질 등이 있다 (서민원, 1997; 최정윤·이병식, 2008; 오영재 외, 2001; Astin, 2003; Kuh et al,

3)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변화가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돈희, 1993; Astin, 2003; Pascarella & Terenzini, 2005; Kuh, 2005)을 고려하여, 학생성과, 학습성과 등을 포함하는 학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겠다.

2005; Pascarella & Terenzini, 2005). 학습성과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들은 ‘과정’ 측면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고 (최정윤 외, 2007), 단일변수로 가장 영향이 큰 요인은 학생들의 경험의 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정윤, 이병식, 2008; Astin, 1999; Kuh et al, 2005).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한동대는 1995년 포항에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기독교 정신에 바탕한 종교계 대학, 대학원보다는 학부 교육에 중심을 두는 교육중심대학, 재학생의 80%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형 대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첫 해 400명의 신입생으로 시작한 한동대는 2013년 현재, 13개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생은 총 4617명(학부생 3891명, 대학원생 726명), 교원은 총 305명이다.

한동대의 교육은 장인공(工)로 표현된다. 밑의 가로획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성 및 기초 교육’으로, 무감독 양심시험, 인성교육, 봉사활동, 실무전산, 실무영어, 생활한자 및 중국어 의무 이수 등이 포함된다. 가운데 세로획은 ‘전문성 교육’으로 수요자 중심 전공선택, 복합 전공교육, 팀티칭 및 토론식 수업, 산학협력 맞춤형 교육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제일 위의 가로획은 ‘국제화 교육’으로 100%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정, 모든 전공과정의 국제화 프로그램, 국제시민 및 자질교육등이 포함된다. ‘기독교 신앙교육’은 이 공자의 토양이 되는 것으로 한동대 교육이 서 있는 터이기도 하다.

2. 자료수집

연구자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한동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으로, 특히 한동대가 갖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 독특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겪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학생의 입장에서 알아보려고 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은 명확한 경계를 가진 한동대 학생들이며, 그들의 교육적 경험은 한동대라는 정황적 조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정황적 조건을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은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었고, 영향요인도 서로 관계를 맺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질적 접근을 통하여서 파악될 수 있는 문화적 요인도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연구자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선택했다 (Stake, 2000; Yin, 2005).

2010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세 차례 (각 3일, 4일, 14일) 연구지를 방문하였고, 이런 방문 기간 동안 심층면접, 참여관찰, 문서 및 영상자료 수집을 하였고, 그 분석도 자료 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방문 기간 주로 이루어졌다. 면담자는 학생 29명, 교수 7명, 교직원 4명으로, 학생 중 졸업생 및 편입생 등 서울에서의 면담도 수 차례 진행되었으며, 거리가 먼 졸업생의 경우 전화면담을 하기도 했다. 면담 이전에 한동대에 대한 문헌 및 방송을 통해서 한동대의 교육의 목표, 커리큘럼의 구조와 특징, 외부에서 보는 교육의 강점 요인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알아보려고 한 질문과 관련된 반구조화 된 면담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하였다. 면

담 시간은 1시간~2시간 이었고, 내용은 면담자의 허락 하에 모두 녹음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이를 내로 전사하였다.

방문 기간에는 입학식, 채플, 교수예배, 동아리 모임, 팀모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한동대 캠퍼스 내를 돌아다니며 교정의 분위기 및 학생들의 일상 및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학교의 분위기 및 일상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눈에 띄는 것은 관찰일기에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어두었다. 연구와 관련하여 한동대와 관련한 홍보영상자료, 한동대 소식지 ‘갈대상자’, 총장강연자료, 한동대 중장기 발전계획, 신입생책자‘한동자리’, 한동대 인성교육메뉴얼, 소개집 ‘Calling for you’, 교목실사역안내서, 공학교육혁신센터 뉴스레터 ‘공학과 그의 나라’, 한동대 성장 에세이, 기타 방송 및 언론에서의 기사 등, 학교 내부의 공식/비공식 자료 및 학교 외부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연구자는 면접 자료에서 나오는 많은 개념들에 코드를 부여했다. 이런 코드들은 크게 학생 본인의 배움과 성장과 관련된 경험과 그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또 다른 차원의 범주는 학생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주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을 의미의 유사성 및 관계성을 바탕으로 범주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후기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는 범주화된 코드의 묶음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때로는 범주가 바뀌기도 하고, 범주 내의 코드가 다른 범주로 바뀌기도 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큰 주제가 드러났다.

IV. 교육적 경험의 특징

한동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은 ‘공동체를 통한 전인적 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의 경험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사명의 발견,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본인이 가지는 신앙 등 학교가 추구하는 지성, 인성, 영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1. 비전: ‘사명’에 대한 치열한 고민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여겨지는 교육적 경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는 ‘비전’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비전은 일종의 ‘사명’과 같은 것이었고, 이것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은 인성, 전공선택, 공부, 신 양등의 경험과 많은 부분 겹쳐져 있었다. 즉 비전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배움,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한동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비전은 어떤 것인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동대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후에 설명할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한동대 학생들이 말하는 비전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통하

는 점들이 있었다. 비전은 “직업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며, 나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남과 북이 통일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과 관계가 있었고, 진로나 직업을 넘어서는 것으로, 때로는 취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겨졌다. 학생들은 비전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로 ‘소명’, ‘사명’, ‘꿈’, ‘방향성’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비전은 인생 전반에 걸친 ‘삶’의 의미와 목적, 혹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의미하였다.

학생들의 비전에 대한 관심이 처음 드러나는 때는, 사실 대학 입학 전이다. 여러 연구참여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까지 대학 입시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공부의 목적, 인생에서의 사명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대학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길 기대했고, 그 고민을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한동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한동대가 추구하는 가치였다. 특히 타 대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기존 대학의 분위기는 학업 및 직업준비를 넘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기 쉽지 않았으며, 한동대에서 기대했던 바를 이야기해주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학생들은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한동대에서는 확실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들고, 비전이 뭔지 꿈이 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해주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수업을 통해서라기보다, 선배들도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전해주고. 교수님들도 그런 걸 이야기해주시는 좋은 교수님도 너무 많고. 특별히 관계가 학생이랑 친밀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강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자주 해주세요. 그런 강의도 많고, 강의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신앙 프로그램에서도 성경공부만 하는게 아니라 비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야기 해주시고, 왜 우리가 비전을 생각해야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이야기해주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영현)

한동대 구성원은 비전에 관심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로 다양하게 묶여있기에, 이런 관심은 증폭되고 있었다. 특히 신입생 때부터 시작되는 팀제도에서는 사명, 비전, 목표,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해야만 하는 기회를 준다. 팀제도와 관련된 소규모 공동체와의 만남들, 기숙사, 성경공부모임, 동아리, 심지어 팀플 때에도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학생들은 본인의 비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적 사명 혹은 비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면담을 했던 모든 학생은 한동대의 교육을 설명할 때 두 슬로건을 빼놓지 않았는데, 하나는, ‘Why not change the world’로, “세상을 바꾸지 않겠는가?” 혹은 “세상을 바꾸자”로 번역될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배워서 남주자’이다. 두 슬로건을 하도 많이 들어 ‘세뇌’가 될 정도라고 할 정도로 4년 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 슬로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을 주제로 주변의 친구들과 나눌 기회도 많다. 태수 학생은 ‘지나가는 한동인’을 붙잡고 물어도, 슬로건에 부합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했고, 정환학생은 ‘잇을 만하면’ 채플이나 팀모임을 통해서 학교의 슬로건과 그 의미를 항상 듣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비전을 다시 한 번 ‘다잡게’ 된다고 했다. 일반 대학의 슬로건과는 달리 이 짧은 두 개의 슬로건은 한동대의 교육이념을 요약해주는 동시에 한동대 학생들의 의식에까지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은 한동대 교수들이 더 여건이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대에 남아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교수들이 가진 비전,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

여기 보면, 교수님들이 되게 좋은 직장이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비리그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학 나오신 분들 많은데,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비전과 소망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더 뜻이 있고. 내가 먹고 살자고 이 직업을 하는게 아니고, 정말... 뜻이 있으셔서 하시니까 열정이 있으신 분도 많은데. (태수)

자신의 비전을 따라서 사는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었다. 특히 말로만 비전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다는 면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다.

비전은 한 차례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이 의미 있게 여기는 경험은 자신의 비전이 무엇이다라고 발견한 것이라기보다, 비전을 강조하는 한동대의 분위기 속에서, 비전에 관심이 많은 교수와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여러 방향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어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인성: 일상 속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배움

한동대가 추구하는 '인성'은 대학의 비전 선언문과 교육이념에 드러나 있다. 비전선언문에는 '정직과 봉사의 희생정신'을, 교육이념에는 '사랑, 겸손, 봉사'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 한동대 학생들이 인성, 혹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 봉사, 희생, 사랑과 같은 가치 및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필요한 사회성과 같은 것들로 대학의 비전선언문에 나온 '정직과 봉사의 희생정신, 교육이념인 '사랑, 겸손, 봉사'와 다르지 않았다. "정직하게 되었다", "남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게 되었다.", "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등으로 본인의 인성에 대한 배움 혹은 성장을 이야기했다.

한동대는 학생들의 인성적인 면의 성장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이 있다. 하지만 많은 한동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인성'과 관련된 경험은 주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일상의 생활을 통한 것이었다.

인성교육이 그냥 생활이 되더라구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보면서 배웠거든요.(현준)

한동대는 신입생은 전원⁴⁾, 전체 학생들의 80%가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기숙사의 시설은 그리 좋지 못하다. 연구자도 기숙사를 방문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4명의 옷장이 양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고, 이층침대 2개, 책상 4개가 들어

4) 신입생 전원에게 우선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신입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면 더 이상의 여유공간은 없었다. 화장실도 남자 한 명이 들어가면 딱 맞는 크기였다. 재현 졸업생은 이런 공간에서 생전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하는 것은 대학 입학 전까지 대부분 단체생활을 할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는 ‘평범한’ 환경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환경 자체의 문제 이외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점들이 발생했다.

학교의 규모가 작고, 집단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고, 기본적인 생활 자체를 좁은 기숙사에서 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서로서 많이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겪으면서 대인관계에 필요한 배려나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본인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있었다. 한동대 학생들은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혹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던 희진학생은 공동체생활을 계속해서 사회화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화가 변해 복’이 되었다며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이자 강점이라고 했다.

연구자는 한동대 졸업생에게 대부분의 한국의 대학들이 사람의 됴됨이를 따지는 인성교육을 그 교육목적에 두었음에도, 특별히 한동대가 인성교육을 잘 시키는 대학으로 소문이 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답은 간단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해라~ 이야기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잖아요. 양심시험(무감독시험)을 치잖아요.(사랑)

학생들은 ‘정직’이라는 덕목과 관련해서 ‘무감독시험’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시험지 상단에 정직하게 시험 칠 것을 확인하는 곳에 사인을 하면서, 성적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컨닝을 하는 것 보다는 내 양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게 된 것, 한 번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컨닝을 했지만, 그 후 양심의 가책이 들어 컨닝이 ‘질색할 정도로’ 싫어졌고, 정직하지 못했을 때를 경험해보므로, 정직의 가치를 배우고 이었다.

교수들과 선배들이 보여주는 본 역시 학생들이 인성을 배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여러 학생들은 교수들의 인격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수업 시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 꼭 답을 찾아오는 것, 시험 때 학생들에게 과일을 사다 주시는 것, 집으로 초대해서 격의 없이 사적인 이야기까지 들어주는 것, 학생의 실수로 인한 행정상의 잘못을 5번이나 직접 찾아가서 바꾸어준 것 등 일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인격을 닮아가고 싶다고 했다.

강조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받으면서, 본인도 배우면서, 베푸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뭐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무슨 세미나 듣고, 그 래야 이런 것 할 수 있다? 아니고 생활에서, 기숙사에서 살면서 선배들과 공부하면서 이런 걸 다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현준)

학생들은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의 목표에 동의하며, 이런 인성교육을 통한 본인의 성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현준 졸업생은 인성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성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본인을 비롯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인성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한동대 내에서 학생들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현준 졸업생 이외에도 여러 연구참여학생들은 본인 및 주변 친구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었는데, 이런 변화는 인성이 강조되고,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한동대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3. 전공 선택: 관심과 재능의 발견과정

한동대의 학생들은 전공 선택의 경험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다. 입학생 전원은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간 자신이 관심을 갖는 수업을 듣고, 2학년 1학기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정한 전공은 6학기 때까지 3차례 변경할 수 있고, 또한 제 2전공, 제3전공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전공별로 인원수 제한이 없이 본인이 원하는 전공은 성적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무엇을 전공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고, 전공을 선택하는 가운데 본인의 재능은 무엇인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 있었다.

(일반 대학교의 학과 시스템은) 교수중심, 학교중심이다. 그건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게 뭐가 맞는가 탐색하다가 거기서부터 자기 전공을 정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 평생 동안 그 전공을 가지고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김영길 총장)

한동대의 무전공제도의 취지는 ‘학생중심’ 교육이다. 교수중심, 학교중심 대학처럼, 이 전공의 교수가 이만큼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것에 맞추어야 하는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아 졸업생은 원래 신학이나 순수화학을 하려고 하였지만, 한동대에서는 신학 및 화학 전공이 없었기 때문에 심리학개론, 프로그래밍, 화학, 생물학 등 문이과를 넘어 모든 분야에 ‘도전’을 해보았고 가장 좋아하게 된 생명과학을 전공하여 현재 생명과학 분야의 석사과정 중에 있다. 다른 학생들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재능은 어디에 있는지,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다. 연구참여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입학 후 직접적인 경험과 치열한 고민의 기회 이후 전공선택의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했다.

근데 제가 그런 과목을 다 들으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재능)가 있고, 내가 같은 에너지를 들여서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 있을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또 특별히 더 재미있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제가 상담/사회를 멋모르고 하려고 했어요. 심리학개론을 들었는데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언니는 같이 들었는데 그게 맞는거예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대학에서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연아)

전공선택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태수학생의 경우, 제대 후 4학기가 되던 때에 전공을 다시 바꾸었다. 입학할 때에는 기계를 전공하려고 했지만, 1학년 때 언론정보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흥미분야를 찾게 된 후, 언론/정보를 전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군대에 있으면서 본인의 전공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졸업 후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지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전공 선택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였다고 한다. 결국 원래 계획했던 기계로 전공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내가 정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적성이 뭔지를. 많이 고민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미래까지 스스로 설계하는 훈련을 하는 것 같고. (태수)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구한다. 학교 내에서는 주로 교수님과 주변 학생들에게 도움을 얻는다. 한동대의 이점은 다양한 학년과 전공의 학생들과 직접 교류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일단 같은 팀의 선배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구자가 참여했던 팀모임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입생들을 위해서 각자의 전공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소개해주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선배의 이야기 뿐 아니라 그 선배의 생활을 직접 봄으로써 전공생활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4. 공부: 공부의 동기

학생들이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공부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공부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여러 학생들의 대학입학 전 공부의 이유는 근시안적이고, 부모님의 바람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목표들은 대학 진학 후 그 피상성을 드러내고, 공부를 하는 동기로서의 힘을 잃게 되었다.

좀 더 숭고한 목적(higher cause)...그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대충 하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충 돈 벌고, 대충 취직해서, 대충 이러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목적(I have something else). 좀 더 높은 것을 위해서 하니까 애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중략) 나를 위해 하면 언젠가는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질적인 것, 돈 벌기 위해서 이걸,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의지가 쉽게 무너지거든요? (중략) 배우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걸 공부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하는가? 이 공부의 목적이 뭔가?(what is the purpose of this?) 지식에 목적을 주는 것 같아요. (현준)

한동대 이전에 두 학교를 다니고 편입한 병철학생도 공부의 동기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었는데, 공부의 동기가 자기 자신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한 타인 및 사회가 될 때, 공부를 하는 “더 큰 열망, 욕심, 부담, 자극,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타 대학으로 편입을 했던 하리 학생도, 같은 의전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하더라도, 의전을 가려는 목적에서 한동대 학생들이 더 이타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한동대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한 마디를 꼽으라면 ‘바쁘다’이다. 학생들이 바쁘게 지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많은 학습량이다. 연구자는 몇 학생에게 실제로 한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았지만, 본인들도 딱 잘라 말하기 힘들다고

하여 정확한 시간으로는 계산해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한동대의 학업량이 '분명히' 많다고 하며,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타 대학 경험이 있는 병철학생은 이전 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면서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지만, 시험과 과제의 양에서 한동대가 더 많다고 했다. 타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한동대 대학원에 다니는 지현학생도, 한동대 학생들의 공부량이 많은 것에 대해 놀랐다고 한다.

한동대 애들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도서관에 있는거하구요. 그리고 과제가 굉장히 많고. 학부생들이요. (중략) 일반 학부는, 시험도 밤늦게 보구요. 수업 하고 나서 방과 후에 시험을 봐요. 숙제도 굉장히 많고, 그룹스터디도 굉장히 많구요. 이게 시험기간에만 이러는게 아니고 평소의 모습이에요. (지현)

5. 신앙: 세상을 보는 기본틀

학생들은 교육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했다. 신앙적으로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직접적 경험도 있었고, 다른 배움과 성장에 신앙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비전 및 전공선택을 자신의 신앙과 떼어놓기 보다는 하나로 뭉쳐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기초 위에 비전과 전공을 맞추어간다고 볼 수 있었다.

한동대 학생들이 교육적 경험과 관련하여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입학 전부터 가지고 있던 성향과 큰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참여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자신의 기본적 세계관을 키우는 것을 대학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온다고 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은, 신앙에 대해 배워가면서 본인의 신앙과 일상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과 세상,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여러 학생들은 어떤 전공, 어떤 직업, 어떤 삶을 묻기 전에, 그들은 본인이 가진 기독교 신앙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전공,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사랑 졸업생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공부의 의미를 신앙적인 관점을 통해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아야 하는 역할들을 잘 말아서 잘 하는 것. 법률, 의료, 행정, 경제 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잘 말아서 청지기로 잘 살아가는 것. (중략) 역할을 감당해내는 청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신학을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대학도 왔고, 초중고 교육을 받는 거였구나. 하나님나라 시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운 것 같고, 또 학교에 있으면, 우리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이 나라만이 아니라, 애국하는 길이 다른 나라를 살려주는 일, 더불어서 살아가는거 있잖아요. 그런걸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사랑)

사랑 졸업생이 '청지기', '시민'을 언급한 것은 그의 신앙이 단지 개인적인 선호나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책임의식은 사랑 졸업생이 왜 초.중.고, 대학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의미를 갖게 했다. 즉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들이 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한동대 학생들은 가치관에서의 큰 변화를 겪기도 했다. 특히 희진학생과 현승학생은 공식적 면담이 끝난 후,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대학에서 본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동대는 학위를 받는 기관, 전문성을 기르는 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희진학생은 이 변화를 ‘라이프 체인징(life changing)’, ‘트랜스포밍(Transforming)’, ‘가치관의 전복’이란 말로 표현했다. 한동대에서의 경험과 그로 인한 그들의 성장은 본인들에게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이 학교에서 정말 라이프 체인징(Life changing)을 경험하고, 막, 완전 가치관이 전복되는 경험들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 때 모습은. (이런 경험들은) 뭔가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희진)

(개인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많이 다르죠. 사실은. 한동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걸 따지면 사실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죠) 사실은. 저도 그 때 이후로 삶이 바뀌었죠. 가치관도 달라지고. ‘아! 진짜,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한뼉 가리 해야겠다’ 라는 마음에서,(하하하) 아 그래...[희진: 트랜스포메이션](하하하). (현승)

현승학생이 말하는 ‘한동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신앙적인 가치를 실제 생활에서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관이 바뀌고, 본인이 왜 한동대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을 찾게 되었다.

V.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들이 교육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경험을 통한 본인의 변화와 그 변화의 영향요인이 포함된 과정을 나누지 않았기에, 교육적 경험과 그 영향요인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논의의 필요상, 이번 장에서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드러난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된 영향요인들은 가시적인/비가시적인, 하드(Hard)한/ 소프트(Soft)한, 물리적.제도적인/문화적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개념을 대표해서 경성(硬性:Hard).제도적 요인, 연성(軟性:Soft).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및 공식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경성.제도적 요인과 비공식 교육과정, 구성원 공동체 특성, 구성원의 공유한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연성.문화적 요인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 가운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 경성.제도적 요인

가.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한동대의 위치적 고립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학교 주변에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할 상황 속에서는 ‘사람을 통해서’밖에 할 것이 없기에, 학교 내의 다양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구성원들끼리 교류하였다. 학교의 규모도 작기에 한 번 만난 학생을 이후에도 여러 번 다시 보게 된다. 한 학생은 기숙사에서 도서관까지 10분도 안 되는 거리를 걸으며 30번 넘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서로 더 배려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기도 했다.

기숙사생활은 학생들간 소통의 양과 질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등하교시간을 줄어든다. 팀프로젝트 및 동아리 모임을 밤이나 새벽에도 할 수 있었다. 작은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에 옆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모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 연구 참여자의 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방모임을 갖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를 하기도 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편함이나 이득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속마음까지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깊이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작은 공간의 공유로 인해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배우게 해 주고, 본인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고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기숙사는 팀제도와 맞물려 여러 전공과 학년이 섞이기에 타 전공 사람들의 다른 관점과 생활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나. 정규 교육과정 및 제도

팀제도는 한동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관계의 시작점’이었다. 담임교수 한 명, 전공과 학년이 다양한 40여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은, ‘공동체훈련’이라는 1학점 수업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한 시간씩 모임을 갖고, 체플에 참여한다. 신입생들은 첫 학기, 15명 정도 되는 선배들과 한 명씩 아침식사를 같이 하며 학교의 문화와 정보를 접하고, 담임교수는 한 학기 한 번 이상 팀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하는데, 진로 및 학업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이성친구와 같은 사적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다양한 전공의 선배로부터 각 학과공부에 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 무전공제도로 들어와 전공을 정하는 신입생들은 팀은 통해 전공선택에 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시험 기간에는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시험을 응원하기 위해 학생식당 출구 쪽에 편지와 박카스, 초콜릿 등을 진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팀은 한동대의 독특한 축하 및 격려문화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물론 모든 팀이 같은 정도의 친밀감을 갖고 교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입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물리적,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한동대 문화에 속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했다.

무감독시험 제도는 학생이 정직한 행동을 직접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정직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학생들은 교수들이 본인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 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하는 동기를 얻기도 했다.

무전공제도는 2학년 이후에 성적과 관계없이 전공을 정할 수 있는 제도로, 한동대 학생들이 전공 및 비전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돕고 있었다. 이 제도의 큰 이점은

학생들이 전공선택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의 과정은 단순히 어느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까지, 더 나아가 자기가 선택하는 전공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은 본인이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의 보다 깊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성적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다양한 차원에서의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선택한 전공이기에 전공에 대해 만족할 가능성도 높다. 한동대는 이런 제도로 인해 학과간의 서열의식이 없는데, 이는 팀 및 기숙사 생활에서 전공의 구별이 없이 섞여 지내는 한동대 내에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녁때에도 ‘밤 먹듯이’ 이어지는 팀프로젝트, 절대평가제도, 연구성과의 비중이 낮은 교수평가제도 등도 학교 학생들의 협동과 소통의 양 및 질을 높이고, 교수들이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쓸데없는’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한동대의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2. 연성.문화적 요인

가. 비정규 교육과정

신입생들이 한동대에 대한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한동대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 한스트(HanST)로, 계획 수립부터 실제적 진행까지 모두 학생들이 주도한다. 신입생들은 4박5일 간의 다양한 활동과정에서 학교의 문화, 선배들의 사랑을 느끼는데, 특히 ‘명예서약식’과 ‘세족식’은 가장 큰 인상을 남겼다. ‘명예서약식’은 주로 인성과 관련된 것으로 책임성, 정직, 타인의 인격과 권리 존중, 섬김, 희생 등의 가치를 지니며, “나는 한동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일생 동안 정직함과 성실함을 지킬 것을 나 자신과 나의 동료와 나의 대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서약하고, 뱃지를 받고, 교수 및 선배가 기도를 해준다. ‘세족식’은 다양한 외부활동으로 더러워진 신입생들의 발을 교수 및 선배들이 씻어주며 기도를 해준다. 신입생들은 ‘누군가 희생으로 자기를 섬기고 준비한 모습’, ‘가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빠함’,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등에 감동하고, 한동의 색깔이 어떤지, 구성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몸소 체험한다.

한동대에는 봉사할 기회가 많다. 한스트의 준비도 본인의 사비로 기숙사비용과 식사비용을 들여 두 달 가량 준비하고, 새섬이(‘새내기 섬김이’의 줄임말)로 봉사하는 200명 정도도 학기 시작 전 3일 미리 와 교육을 받고, 한스트를 시작으로 한 학기 동안 신입생의 안내자로, 식사를 같이 하고, 수강신청을 돕는데, 이는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동대의 인지도가 낮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교내 홍보활동을 하는 홍보단체 ‘나누미’도 학생들이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비 지원 이외에 본인이 얻는 것은 없었지만, 여러 학생은 ‘한동대가 좋아서’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방학 때에는 매 년 해외봉사를 나가는 학생이 600여 명으로, 학교 재직인원의 1/5에 해당하는 수이며, 봉사비용은 대부분 개인이 충당한다.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묶이는 팀과 달리, 동아리는 특정한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동아리를 통하여 깊은 소속감을 느끼고,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나. 친밀한 공동체 형성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전인적 성장의 핵심은 그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들과의 잦은 소통이었다. 구성원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에는, 물리적 환경, 커리큘럼과 제도뿐만 아니라, 구성원간 형성된 친밀한 관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1)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한동대의 학부 학생들과 교수와의 관계는 일반 대학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깝다. 한동대 학생들은 대체로 교수를 친근하게 생각한다. 3학년 성조학생은 ‘옆집 아저씨’로 묘사하기도 하고, 타 학교 재학경험이 있는 병철학생은 학생들이 교수와 친해지고 싶어 하고, 장난도 치는 모습이 ‘충격’이었다고 한다. 학부 학생들은 교수 연구실에 찾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데, 밤늦은 시간에도 연구실에 불이 켜있으면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 한 교수는 교내의 기숙사에 거주하는데, 12가 넘는 시각에 도움을 청하러 온 학생을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 학생들은 교수와 학업이외의 이성교제, 개인적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많았다. 팀 책임교수가 팀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많고, 일부는 집에서 학생들과 성경공부를 하기도 했다. 스승의 날 연구실을 꾸미는 문화로 인해 거의 모든 연구실은 그림과 사진으로 형형색색 꾸며져 있었고, 채플 시간 교수들이 부르는 ‘베사메무초’에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교수와 학생의 친밀함은 총장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연구자가 학교 도서관에 머무는 동안 총장이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안마를 해주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다. 식당에서 총장이 들어오자 여러 학생이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채플 시간에 외부 수상을 하면 총장이 상패를 주며 학생을 꼭 안아주는데, 그것이 많은 여학생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친밀함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수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동역자’, ‘자식’, ‘사회를 바꿀 사람’, ‘같은 인격체’ 등은 학생들이 느끼는 교수자의 자기에 대한 태도를 묘사할 때 자주 거론되었던 단어들이다. 타 대학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이런 차이를 더욱 많이 느꼈다. 이런 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수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인생의 선배’로서 뭔가를 가르쳐주고자 한다는 것은 느끼게 했다.

2) 공동체 의식

한동대에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식교과과정과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과 제도가 계획한 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갖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팀제도는 다른 대학에서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교수는 그 만큼 시간을 내지 못했고, 학생들끼리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기에 중단되었다. 서로 간에 공동체 의식,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제도라도 다른 곳에서는 제도가 의도했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구조와 제도가 돌아가도록 하는 ‘윤희류’ 같은 것으로, 구성원들끼리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며, 한편으로는 대학 내 문화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한동대 학생들은 동료 학생들에 대해서 ‘동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이라고 했다.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난 것을 한동대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본인의 인생의 가치와 비전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학생들이 말하는 ‘뜻’은 같은 신앙, 같은 전공에 대한 관심사, 비전 등의 여러 가치를 포함한다.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이 모이게 되면 대화가 더 잘 통하고, 공동의 목표를 같이 설정할 수 있고, 그렇다보면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많아진다. 또한 혼자서 하게 되면 포기하기 쉬운 비전도 여럿이 같이 하다보면 이루기 쉬워진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친구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고양시켜주는 면이 있었다. 가령, 추구하는 비전이 경제적 안정보다는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 주변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교류하면서, 비전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 졸업생의 이야기와 상통한다.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근데, 한동대 와서 공부하다보니깐, 그게 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렇기 보다는, 약간의 분위기 같은게 있어요. 그리고, 왜..그 바보들 속에서는 천재가 바보 되듯이, 이곳에서는 이곳에서 공유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중략) 그 길(편하게 사는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또, 내가 만나고, 내가 고민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가치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

사회적 명예나 경제적 지위를 추구하던 사랑 졸업생은 한동대 입학 후 꼭 높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바라게 되었다. 하지만 늘 더 편해 보이는 길을 가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이 때 한동대의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원래 추구했던 비전을 다시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본인을 비주류라고 이야기하며 한동대를 가장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현우학생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해 채플실에 기도하러 가면, 자기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 그것을 자기가 믿는 같은 절대자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었다. ‘멋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런 무리를 통해서 혼자서는 외로워서 지속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심과 떨어진 한동대를 ‘사람밖에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가까운 문화시설이 없기에 무엇을 하려 해도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밖에 없고,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 정보의 공유가 필수이다. 기숙사, 팀제도, 동아리, 팀프로젝트 등으로 최소 4~5개의 공동체에 동시에 속해 있다보니 문제가 떨어지면 혼자서 ‘조용히’ 하기 보다는 상황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동대에는 누구의 필기가 좋다고 하면 친한 친구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업을 듣는 인원 중 한 명도 누락되지 않게 모두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친한 친구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일반 대학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함께 하려는 성향은, 학생들간의 관계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필요 이상으로 깊이 개입하는’이라는 학생들의 설명, ‘학교 내 생활 전체가 수업을 받는 느낌’이라는 학생들의 표현,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너무 ‘당연해하는 문화’가 있어 어떤 문제가 던져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같이 해결하려고 한다는 수진교원의 설명과도 통

한다.

타 대학으로 편입을 한 하린학생은 한동대에서는 ‘누구나 다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의 것을 나누는 것이 익숙해진 것 같다고 했는데. 상호 의존성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Palmer, 2000), 누구나 다 서로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인식은 한동대 내의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구성원의 사명의식과 공유된 가치관

한동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이 일 년에 50회 정도 있는데, 1차 방문했던 사람들이 2차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이유는 1차 방문 때 한동대에서 가르쳐 주고 배워간 대로 다 했는데 자기 조직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그 떡볶이 할머니의 핵심 노하우 같은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동대 외부기관 방문에 관여하는 사랑 교원은 이 핵심노하우로 구성원들의 ‘마음’, ‘마인드’를 거론한다. 즉,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교육제도를 배워갈 수 있을지언정, 엄마들의 교육열을 배워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나 정신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문화적 접근’에서 많이 다루어진다. 사람들이 공유한 가치관이나 정신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Bolman & Deal, 2004). 가령 한동대 교수들이 학생들의 인성적인 면의 성장이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을 교육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수들의 행동양식으로 드러나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가지적으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행동과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동대의 문화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 본인의 공부 동기, 인격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때, ‘분위기’, ‘환경’, ‘기후’, ‘표현하기 어려운 힘’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다.

1) 교수자들의 교육에 대한 사명

연구참여 교수들은 그들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공부, 자신, 삶, 세상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었고, 이런 생각은 많은 한동대 교수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비전에 대한 인식이 한동대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은, 교수들이 왜 한동대를 선택했는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동대 설립 당시, 한동대에 교수로 온다는 것은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 이사장이 없는 학교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 급여가 다른 대학에 비해 많이 적었고, 지방이라는 위치 상 자녀교육여건도 수도권에 비해서 좋지 않았다. 초기에 한동대에 온 교수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교수직을 하거나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한동대에 오게 된 이유도 자기 자신의 안정과 명예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였다.

특별히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으면 올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애. 신앙을 갖게 되고 내 인생에 무엇을 할 것인지 찾다가, 그 다음에 한동대가 생긴다는 소식이 듣고 연결이 되어서 신청을 해서 한동대에 왔지. (중략) (내 목표는) 학생을 변화시키는 거지. 학생을. 이게 교육이 아닌가. (중략)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도

록. 라이프 포밍(life forming). 인생을 조성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인 것 같아. 지식 전달보다는.” (김성윤 교수)

한동대 교수는 학생과의 면담하는 시간이 많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팀모임, 팀학생들과 일대일 면담, 그 외 ‘수시’로 찾아오는 학생들을 대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면담은, 개인의 경력으로 쌓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길 경우도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연구와 다르게 그 과정과 결과를 개인의 성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교수의 희생이 따르는 일이다. 교수회의에서도 의견이 갈릴 때, ‘학생’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모든 의견을 뛰어넘는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교수자의 교육에 대한 사명감은 학생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었다. 많은 연구참여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계시기 아까운 인재들’, ‘먹고 살기 위해서보다는 좋은 것을 버리고 헌신해서 온 분들’, ‘자기 비전을 따라 오신 분들’ 등으로 교수를 표현했다. 학생들도 교수가 강조하는 것이 전공 지식을 넘어, ‘이 공부를 하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을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등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한동스피릿

한동대 학생들은 한동대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몇 학생들은 그것을 ‘한동스피릿(Handong Spirit)’이라고 했다. 이 의식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를 넘어서 학교와 학생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음줄 같은 역할을 했다.

학생들은 ‘한동에서 배운 것처럼’ 또는 ‘한동스피릿’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다짐한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한동스피릿은 한동인으로서 살아야 할 어떤 가치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치기준은 기독교 정신, 세상을 바꾸자는 것, 배워서 남주자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과 같은 것들이었다. 학생들은 ‘한동스피릿’을 본인의 마음이 ‘헤이해지면’ 다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원점’, 본인의 인생과 세상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영적 멘토’, 지성을 추구해나가면서 그 지성추구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게 해주는 ‘지성의 쉼터’라고 표현했다.

‘한동스피릿’은 한동대 학생이기에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포함한다. 한 학생은 이것을 ‘한동이라는 이름의 무게감’이라고 표현한다. 가령 의사가 되어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고, 정환학생은 그런 선배들이 많다는 것을 한동대의 자랑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K대로 편입한 하린학생은, 같은 의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 할 지라도, 한동대 학생들은 안정된 사회적 지위보다는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한동대 대학원에 온 지현학생도 한동대 학생들은 취업 이상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전 학교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 지선 졸업생은 한동대를 졸업하더라도 ‘메이드 인 한동(Made in Handong)’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진다고 했다. 학생들은 한동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정직, 성실, 솔선, 희생, 봉사의 정신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인재상을 갖추어 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한동대 학생들은 한동대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자부심은 소위 명문대학 학생들이 가지는 자부심과는 조금 달랐다. 명문대학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니

고 싶어 하는 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하지만, 한동대 학생들이 갖는 자부심은, 다른 대학과 추구하는 가치 면에서 차별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가령, 여러 학생들은 무감독 시험을 한동대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것을 지켜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교의 문화가 없어지면, 결국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컨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한동대 인트라넷에서 주요한 논쟁이 된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한동대의 자랑스러운 ‘가치’를 훼손하게 되면, 그것은 한동대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으로, 다수의 한동대 구성원에게 더 큰 손해가 된다는 의식을 공유한 것이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한동대에 대한 애정과도 연결된다. 연구자가 재미있게 들은 단어 중 ‘한동홀리’라는 것이 있었다. ‘홀리건’⁵⁾에서 비롯된 용어로, 한동대를 특별히 좋아하는 한동대 학생 및 학부모들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대학에 대한 정보를 물으면, 입학 가능한 점수와 같은 정보성 답글이 대부분인데, 이에 비해 한동대에 대한 질문에는 학교에 대한 애정이 담긴 댓글이 많다. 한동대를 비난하는 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목숨을 걸’ 정도로 뜨겁게 한다. 또한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학부모 모임은 국내 전역에 걸쳐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도 있을 정도다. 이런 애정은 첫 월급을 학교에 기부하는 ‘첫열매’에 참여하는 것, 50만 원 정도의 기숙사 예치금을 기부하는 것, 많은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청소하는 것, 학교 시설에 대해 ‘우리학교편대~~’하며 아끼는 것 등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한동대 학생들이 갖는 ‘한동스피릿’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는데, 이것은 한동대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킨다는 암묵적인 믿음이었다. 지현학생은 학생들이 식당에서 지갑이나 노트북으로 자리를 맡고 밥을 타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동대에서는 기숙사 문을 잠그지 않는다. 민식학생은 문을 잠근다는 것이 사람들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동대는 그렇지 않다보니까 서로 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유대감이 생긴다고 했다. 연구자도 기숙사에서 실수로 다른 방을 들어갔는데, 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의 학생들은 처음 보는 연구자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한동스피릿’은 한동대가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것은 한동대생은 차별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포함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유대 의식, 학교에 대한 일체감을 갖게 하는 그 무엇이기도 하다. 이것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도 하는데, 어떤 걸로 드러난 성과 때문이 아니라, 한동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연구자는 실제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지만, 한동대 학생들의 마음을 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동스피릿’은 그 개념을 설명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 잘 확인될 수 있는 것이었다.

라.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특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학생 특성과 조직 환경의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학생 특성의 차원에서는, 학생이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대학 교육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의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직 환경 차원에서는, 설립 이념, 제도, 구성원 성향을 통해서 학생들의 경험

5)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으로, 자기 팀에 대한 애정을 과격하게 드러내는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연구참여학생들은 한동대가 추구하는 기독교적 신앙에 기초한 교육적 가치가 학교 선택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점이라고 했다. 교육적 경험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경험’이라고 할 때, ‘어떤 기준’, ‘나은 방향’은 다분히 개인의 주관에 반영되기에 똑같이 같은 강의를 듣거나, 같은 장소를 여행했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장을 이루는 큰 경험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성장을 정의하는 기준과 방향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 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어떤 경험에 대해 그것을 교육적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그런 수업이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던 지선학생, 생명공학에서 물질의 시작을 저절로 된 것과 누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하며, 공부하면서 창조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는 지현학생, 창조론에 대해서 질문하면 반가워하며 대화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다는 정은학생,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는 현우학생, 기숙사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기도까지 해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태수학생, 비전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다는 여러 학생들의 경험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다.

기독교 신앙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활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즉 그들이 자신, 세상, 인생을 보는 기본틀인 신앙과 대학에서의 경험들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었다.

연아 졸업생의 경우에도 기독교 선교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이 아닌 다른 학문을 대학까지 와서 왜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일반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적 사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는 생명공학의 전문가가 되어 가르치는 것을 본인의 비전으로 삼게 되었다. 한동대에서 그들의 가치관 혹은 세계관의 변화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영현, 희진, 현승학생의 경험도 그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이 그 변화의 기초가 되었다. 영현학생은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며, 공부에만 열심이었던 본인의 생활을 반성하고, 본인이 가진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얻은 본인의 비전, 특히 사람들을 돕는 비전을 발견하였다. 희진학생과 현승학생도, 본인들이 변화 이전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본인들이 옳다고 믿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신앙과 더욱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본인의 비전을 발견하고,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정의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본인이 받은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사랑 졸업생, 본인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방향하면서 인생의 목적과 본인의 비전을 찾았다고 하는 민찬 졸업생의 경우도 신앙이 인생과 공부의 의미를 숙고하게 만든 큰 이유가 되었다.

기독교 신앙은 학교의 설립 철학을 통하여 학교의 제도 및 구성원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설립 철학은 교육 중심의 교수평가 및 절대평가 중심의 학생평가가 도입되었다. 인성교육을 위해 작은 학교를 지향했고,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도록 지원했다.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이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도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고, 그 이후 졸업 필수 과목에서는 성경과 창조론에 대해서 배운다. 그 이외에 소규모

로 진행되는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

설립 철학은, 그것에 동의하는 구성원을 한동대에 모이게 함으로써 구성원의 성향에 영향을 주었고, 구성원의 성향은 연구참여학생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과 ‘질 높은 소통’을 통한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고민이라는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연구참여학생들은 ‘좋은 사람’이 한동대의 자랑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했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 비전을 추구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사람, 또는 같이 협력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진 비전은 그들의 신앙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여러 학생들은 본인의 기독교 신앙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을 본인의 비전의 근간으로 보았다. 그래서 구성원의 공유된 기독교 신앙은 구성원들이 같은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신앙을 공유했기 때문에 구성원간에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신앙을 공유한다는 것은, 세상의 시작과 끝, 인간 삶의 제 일의 목적, 죽음 이후의 삶,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등과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성경에서의 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 질문에 대한 것은, 또한 교육의 핵심이 되는 여러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우는 것을 중요 교육목표로 삼는 것, 학생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인성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것, 명예나 부의 추구가 목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라는 것 등이 있겠다. 여러 학생들은 전공 선택, 이성친구, 결혼, 사람 관계와 같은 일상의 주제나, 아니면 진리, 세상의 시작,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와 같은 학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가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연구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를 물어보는 학생이 많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없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VI. 결론 및 제언

한동대 학생들이 의미 있게 여기는 교육적 경험은 좋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를 통한 지성, 인성, 영성에서의 성장이었고, 각 영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경험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경성.제도적, 연성.문화적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동대 학생들은 공부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꼈으며, 대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얼마 전 한 명문대 학생이 대학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자퇴를 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교육의 주요 목적을 취업으로 여기며 1학년 때부터 취업과 관련된 공부와 학점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여러 연구들(조용환, 1999; 서덕희.민혜리, 2009; 이민경, 2008)이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인생에 대해 질문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거나, 혹은 그런 필요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등교육에서의 입시를 위한 경쟁적인 공부에 회의를 느끼며, 공부와 인생의 목적,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용환, 1999; 서덕희.민혜리, 2009; 이민경, 2008).

한동대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배움 및 성장의 경험은 비전에 대한 고민, 인성적인 면의 성장, 적성을 발견한 것, 공부의 의미를 찾은 것, 신앙적인 부분의 성장 등으로 요약되고 이런 경험의 공통점은 ‘의미와 목적’에 대한 물음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경험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재능이 있는가?’, ‘내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덕목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에 맞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런 한동대 학생들의 반응은 조용환(1999)의 연구결과⁶⁾와 매우 비슷하다. 즉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필요를 느끼고 큰 관심을 보이지만, 그들이 더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공부함의 의미와 목적,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관점을 찾아가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동대 학생들이 취업이나 진학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와 사람의 됴됨이를 갖추는 것, 직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자신만의 목적을 찾는 것이 취업보다 더 먼저 이뤄야 할 것이라고 여겼고, 인성, 신앙, 일에 대한 동기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다 ‘좋은’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여기고 있었다. 글로벌한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기 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인간적 자질과, 그 일을 해야하는 확고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미와 목적을 따지는 일은, 취업 및 진학준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보다 적합한 취업과 진학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작업이었다.

둘째, 한동대라는 같은 교육적 환경 속에서도 입학 동기, 희망 직업, 신앙 등과 같은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교육적 경험은 차이가 있다.

Braskamp et al(2006)은 학생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가 선택하는 활동이 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적 경험과 성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그 경험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연구결과와 같이 한동대라는 같은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의 경험은 그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정책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이 목표인 한 학생은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진 공동체에서 공부하는 것, 정부의 교육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 본인에게 의미 있는 일이기에,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한동대에서의 경험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교육학 전공이 있는 명문대로 재수를 결심했다. 반면 명문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았거나 재학하고 있던 학생 중에서 한동대를 선택한 학생도 있었다. 기숙사 생활에 만족해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주말마다 가족과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 집으로 가려는 학생들도 있다. 한동대가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은 신앙적 성장과 관계된 것이었지만, 기독교 정신만 강조되는 한동대 내에서 다양한 시각을 배우기 힘든 점을 주된 이유로 학교를 떠난 학생도 있었다. 특별히

6) 조용환(1999)에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해 조사했을 때, 그들이 가장 신경쓰고 있다고 보고한 취업이나 진학 준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 주체성, 관용성, 현실적 자기이해와 같은 인간적 자질의 성장을 이야기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저자는 취업과 진학준비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인간적 자질의 성장이 본인들에게 실제로 더 의미 있는 변화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7) 여기서 ‘좋은’이란 의미는 흔히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혹은 ‘연봉이 높은’이란 뜻과 ‘본인의 재능과 관심에 맞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이란 뜻 모두를 포함한다.

학생들의 기독교 신앙의 유무는 다양한 차원에서 학생들의 경험에 차이를 야기했다.

셋째, 팀제도, 무전공제도, 기숙사제도, 학교의 물리적 환경, 구성원의 공유된 가치관 등의 교육적 경험의 영향요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대학교육을 통한 학생의 성장을 알아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학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Astin, 2003; Light, 2001; Pascarella & Terenzini, 2005; Braskamp et al, 2006). 한동대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

가령, 무전공제도가 아니면 팀제도를 실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공이 정해지고 들어오면 전공이나 학년이 섞이는 팀이 아닌 전공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팀제도가 있더라도 무전공제도가 아니면, 결국 팀은 전공에 따라서 묶이기 때문에, 전공과 학년에 상관없이 구성되는 팀제도가 운영되기 힘들다. 팀제도가 있어도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지 않으면 친밀도나 소통의 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기숙사생활을 하는 한동대와 같은 소통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원 기숙사 생활은 학교의 규모가 작고, 학교가 시골에 위치했기에 가능했다. 영어와 관련되어서도, 단지 필수 영어학점 및 영어수업 비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팀제도, 기숙사, 친밀한 분위기 등을 통해 원어민 교수와 재외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고,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한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는 학생의 내적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영어능력의 향상 및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의 교육의 질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종의 멘토링 공동체인 팀제도에서 구성원끼리의 활발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이를 위해서는 팀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팀담당 교수가 학생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학생들도 팀모임 이외에서 학생들간의 교류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멘토링 공동체로서의 팀제도의 취지는 달성되기 어렵겠다. 반면 교수 및 학생이 멘토링 공동체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교수가 연구업적평가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학생들도 기숙사에 살지 않기에 교류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팀제도를 통한 멘토링의 기능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앞의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구성원들의 공유한 가치관을 핵심으로 하는 연성.문화적 요인은 그 자체로서, 또한 경성.제도적 요인들이 잘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윤활유로서 학생들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한동대의 분명한 교육이념은, 그 이념에 동의하는 구성원들을 모이게 했고,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을 교육이념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집중되도록 하였다.

한동대의 교육이념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며, 지성, 인성, 영성에서 고루 성장한 전인적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인적 성장은 학생동료 및 교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공부 및 인생 전반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들이 의미 있게 여기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런 활발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갖는 사명의식이었다. 교수들은 시간을 내서 학생들과 면담을 하고, 학생들이 교수를 편하게 생각하고 찾아올 수 있는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수와 학생간, 동료 학생간에 친밀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한 학생의 이야기처럼 ‘학교 전체가 수업’인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는 그 구성원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공동체의 형성이 학생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Astin, 2003;

Braskamp et al, 2006; Light, 2001; Pascarella & Terenzini, 2005).

그런데, 한동대의 이러한 공동체 환경이 조성되는데 가장 중심된 역할은 한 것은 교육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동대의 교육이념은 Kuh et al(2005)에서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자원과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비전과 같은 역할을 했다. 다양한 방면으로 분명하게 제시된 한동대의 교육이념은, 같은 이념을 공유한 교수들을 모이게 했고, 이렇게 모인 교수들은 교육과정 및 제도들을 그 교육이념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맞게 구안해 내었다. 무전공제도, 팀제도, 무감독시험, 전원 기숙사정책, 평가제도, 인성 및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교육과정 등 모든 것은 이러한 한동대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분명하게 정해진 교육이념과 이에 맞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및 제도는, 한동대의 교육이념에 동조하는 학생들을 모이게 했다.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바탕하여 공부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숙고하게 함으로 지성, 인성, 영성 모두를 아우르는 전인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대학의 교육이념을 이루기 위한 교육과정과 제도가 준비되었고, 그런 교육과정과 제도의 취지에 동조하여 본인의 시간과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길 원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은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그에 따라 대학에서의 경험을 본인에게 가장 득이 되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어져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대한 충분한 성찰 없이 대학에 입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그 이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적성 및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한동대 학생들의 경우, 그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경험들은 사람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되었고 이런 활발한 소통은, 다양한 제도는 물론, 구성원들끼리의 공동체 의식, 공유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교육적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혁신 뿐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그런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각 대학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대학의 구성원과 공유하여 각 대학만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분명한 교육이념은 이에 동조하는 구성원들을 모으고, 그 구성원들은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을 그 이념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특히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의 중심이 되는 분명한 교육이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안나.이병식(2003). “대학생들의 핵심능력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 요인 분석.” 『한국교육』 . 30(1). 367-392.
- 김영애(2004). 『갈대상자』 . 서울:두란노.
- 김은정(2005).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 19(4). 877-895.
- 김형관.신현석.서민원.황기우(2001). “대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요인이 학생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등교육연구』 . 12(2). 117-154.
- 서덕희.민혜리(2009). “고등교육에서 질적 수월성이란 무엇인가?: 한 명문대학교 학부생들의 “공부”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 10(2). 51-101.
- 서민원(1995a). “대학교육의 효과성 요인의 탐색(II): 대학교육 과정의 개념화와 규정.” 『고등교육연구』 . 7(1). 211-244.
- 서민원(1995b). “대학교육의 효과성 요인의 탐색(III): 성과변인 탐색과 요인 타당화.” 『고등교육연구』 . 7(2). 63-98.
- 서민원(1997). “대학교육의 효과: 측정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 10(1). 5-41.
- 서민원(2003). “다층모형의 논리적 구조와 적용: 대학교육의 효과 측정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 16(2). 43-63.
- 신정철.정지선.신택수(2008a).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그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 26(1). 287-313.
- 신정철.정지선.김양선.박은경(2008b). “고등교육의 학문적 연구 동향 분석: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 35(3). 167-193.
- 신현석(2008). “대학구조개편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 『한국교육학연구』 . 14(3). 171-202.
- 오영재.박형모.손준종(2001).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대학조직 내 제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 19(3). 207-231.
- 오욱환(2003). “한국 대학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개혁 방향의 구상.” 『한국교육』 . 30(2). 317-341.
- 이민경(2008). “대학생들의 교육경험 담론 분석: 입시교육과 진로경험의 의미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 31. 79-102.
- 이돈희(1993). 『교육적 경험의 이해』 . 서울: 교육과학사.
- 전제아(2005). “한국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사례 분석.” 『인간연구』 , 9. 5-31.
- 조용환(1999). “대학교육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여대생들의 홀로서기를 중심으로.”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 (pp.289-322). 서울: 교육과학사.
- 최상덕.김기수.장수명.채재은.정규열(2008).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정윤.이병식(2008). “대학생의 학습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대학의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 27(1). 199-222.
- 최정윤.이정미.정진철.성태제(2007).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KBS (2004.12.19 방영). 대학 선발보다 도전이다: 어느 지방대의 도전.
- Astin, A.W.(1999). “Student involvement: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0(5).
- Astin, A.W.(200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San Fransico: Jossey-Bass.
- Astin, A. W.(2004). “Why Spirituality Deserves a Central Place in Liberal Education.” *Liberal Education* 90(2). 34-41.
- Astin, A. W., & Astin, H. S.(2007). “Big Questions” *Liberal Education* 93(2). 28-33.

- Bolman, L. G. & Deal, T. E.(2004). *Reframing organizations: Artistry, choice, and leadership*. 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Braskamp, L. A., Trautvetter, L. C., & Ward, K.(2006). *Putting students first*. San Francisco: Jossey-Bass.
- Chickering, A. W.(1993). *Education and identity*. San Francisco, CA:Jossey-Bass.
- Chichering, A. W., Dalton, J. C, & Stamm, Liesa. (2007). *Encouraging Authenticity and Spirituality in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Clark, B. R.(2008). *On higher education*.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ewey, J. (2002). *Experience and education*. 박철휘 역(2002). 『아동과 교육과정/경험과 교육』. 서울: 문음사.
- Ewell, P. (1985). “Assessment: What's It All About?” *Change* November/December, 32.
- Kuh, G. D., Kinzie, J., Schuh, J. H., Whitt, E. J., & Associates. (2005). *Student Success in college: Creating conditions that matter*. San Francisco, CA: Jossey-Bass and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 Light, R. J. (2001). *Making the most of colle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lmer, P. J.(1993).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역(2006).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Vol. 2)*. San Francisco, CA:Jossey-Bass.
- Speck, B. W.(2005). “What Is Spirituality?” In S. L. Hoppe, & B. W. Speck. (2005). *Spirituality in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Stake, R. E.(1995). *The art of case study*. 홍용희,노경주,심종희 역(2000). 『질적사례연구』. 서울:창지사.
- Tisdell, E. J.(2003). *Exploring Spirituality and Culture in Adult and Higher Education*. CA: Jossey-Bass.
- Yin, R. K.(2003). *Case study research*. 신경식,서아영 역 (2005). 『사례연구방법』. 서울:한경사.